

지역 소식

강릉시연합회, 사랑의 송아지 기증식



한농연강릉시연합회 연곡면회는 지난 12월 11일 휴경지를 이용한 농산물 생산 및 판매, 폐품 모으기 등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송아지 1마리를 구입, 생활이 어려운 이웃주민에게 기증했다.

한농연·한여농 김해시연합회 대동면회, 환원사업 펼쳐 귀감

지역 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가 유휴농지에 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 김해시 한농연 김해시연합회 대동면회(회장 이홍구) 및 한여농 김해시연합회 대동면회(회장 박차순) 회원들.

이들은 지역 유휴농지 7500㎡를 임차해 지난 6월께 모내기 시작해 틈틈히 비배관리를 거친 후 콤바인 2대를 투입해 수확한 벼 전량을 농협을 통해 판매했다. 이 결과 이들 회원들은 11일 농협 수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쌀 100포(각 20kg)를 구입, 경로당 32개소와 차상위계층 68세대에 세대당 1포씩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쌀 전달은 쌀사랑 나눔행사의 일환이다"면서 "그동안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 이를 되돌려 주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청양군연합회 운곡면회-대전시연합회 구즉동회 자매결연

한농연청양군연합회 운곡면회(회장 이필우)와 한농연대전광역시연합회 구즉동회(회장 장영환)가 6일 운곡면사무소에서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농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자매결연은 운곡면회 이필우 회장과 구즉동회 장영환 회장이 자매결연협정서에 서명한 뒤 상호 교환, 체결됐으며 문화와 예술·체육·복지 등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기로 합의했다. 또 농산물직거래와 농촌일손 돕기, 농촌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류활동도 전개기로 했다.

이들은 자매결연식에 이어 청양의 대표 농산물 특화시설인 햇쌀랜드, 구기자 시험장, 고춧가루 가공공장 및 농가 등을 둘러보고 이들 시설의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곡성군연합회 농업경영인 의식개혁 교육, 12월 6~7일 화순 금호리조트서 진행



한농연곡성군연합회(회장 유장수)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곡성군 관내 농업경영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영인의 역할 강화와 곡성군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경영인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조직 강화를 위한 '곡성군 농업경영인 의식개혁' 교육을 농업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했다.

유장수 곡성군연합회장은 "곡성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업인이 잘 살아야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농업 분야 전문가의 의식교육과

화합·단결을 통하여 곡성군 농업발전에 큰 결실이 맺어지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연합회 조천읍회, "따뜻한 사랑의 손길"



한농연제주시연합회 조천읍회(회장 부상철)는 지난 29일 조천읍 관내 어려운 이웃 45가구에 쌀 45포대(150만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예산군연합회 김태석 회장, 이웃돕기 쌀 20포대 기탁

한농연예산군연합회 김태석 회장이 지난 11일 오가면사무소를 찾아 연말을 맞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이웃에게 써 달라며 백미 20포대(100만원)를 기탁해 미담이 되고 있다.

평소 "프로 농업인"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김 회장은 오가면 농업경영인회장으로 그동안 FTA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프로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의 리더로 칭송이 자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권섭 광주광역시연합회 남광주협의회회장, 8년째 이웃사랑 실천 앞장서



“내가 직접 농사지은 쌀과 김치로 이웃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벌써 8년째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쌀과 김치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전권섭(48) 한농연광주광역시연합회 남광주협의회회장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는 8년째 농사지은 쌀·손수 담근 김장김치, 독거노인들에 전달하였다. 지금도 전 회장은 2만 2000여평에 걸쳐 농사를 짓고 있다. 이 가운데 1200평은 연말 이웃사랑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전 회장은 “이웃과 정을 나누며 농촌의 문화를 지켜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충남도연합회, 태안 지역 원유 제거작업 봉사 나서

한농연충남도연합회(회장 장석철) 소속 350여 충남 농업경영인들이, 12월 13일과 17일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인한 환경재앙을 겪고 있는 태안군 천리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원유 제거작업에 앞장서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원유 제거작업에 구슬땀을 흘린 장석철 회장과 충남도연합회 회원들은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만리포 등 유명 해수욕장 근처에만 군인, 경찰,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몰리지 기타 해안지역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방제복과 장화·장갑 등이 부족해 기름 묻은 장비를 재활용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금 모금운동 등 전국 농민단체(회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 곳에 닿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용인시연합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한농연용인시연합회(회장 임희철)는 11월 22~23일 농협 용인시지부 앞에서 회원 및 농협 직원,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를 실시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모두 2천여 포기로 관내 11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김장담그기 행사에는 서정석 용인시장 부인인 고영숙씨를 비롯한 시청 실국장 부인들이 함께 참석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